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Time-SLC는 필리핀 수빅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은 5층까지 있고, 시설과 환경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어학원 자체가 산속에 있어서 이동이 생각보다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와 어학원 식당이 한 건물에 위치하여 편리합니다. SLC 전체적인 분위기는 현지인 선생님들이 다들 밝고 친절하셔서 좋습니다.
수업	수업은 필리핀에 도착한 다음 날 바로 모든 학생이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대로 반이 나누어지며, 자기 실력에 맞는 책에 따라 선생님이 배정됩니다. 수업은 총 8개의 교시로 이루어지는데, 4개는 1 대 1 수업으로 선생님 한 분과 학생 한 명이 50분 동안 작은방 안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4개의 교시는 시험 결과에 따라 자기와 영어실력이 비슷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을 다른 분으로 교체하고 싶다면 3일 이내로 말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따라 과제는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데 있어도 많지 않은 양이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Activity	저희는 필리핀으로 치면 겨울 우기에 가서 대부분의 활동을 다 할수 있었습니다. 첫째주에는 큐빅백화점투어 했었고 두번째날에는 요트투어를 했었고 셋째주에는 수영장과 바닷가가 있는 곳에 놀러가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도착한 다음날에는 수빅투어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저희는 필리핀 날씨로 겨울이면서 건기에 갔기 때문에 예상했던거 보다는 덥지 않았고 비도 별로 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안전	필리핀을 처음 가기전에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치안이 좋았습니다.

숙소	<p>학교기숙사( v ) 홈스테이(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도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갔지만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다만 바퀴벌레와 날파리가 조금 있어서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기타( )</p> <p>식당음식도 예상했던거 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식사는 계속 빵과 채소가 매일 똑같이 나와 조금 지겨웠고 점심과 저녁은 맛있었지만 다만 밥이 살짝 우리나라 밥과는 달라 조금은 적응이 안되었습니다.</p>
교통	<p>교통은 Time-SLC가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한번 나갈려면 운이 좋지 않으면 30분정도는 기다려야 하고 보통 fb를 이용하고 fb가 없는 날에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74만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사, 액티비티, 선물	40만원	
합계	11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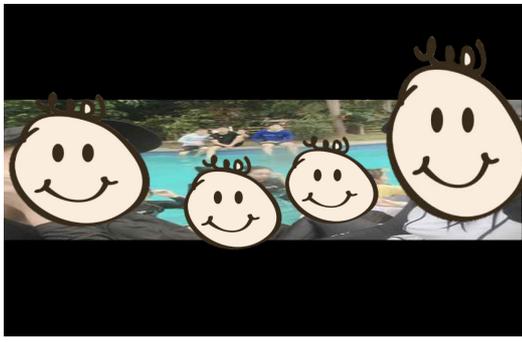
#### 5. 출국 전 준비사항

필리핀은 사계절내내 여름날씨이기 때문에 선크림과 미니선풍기를 들고 가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리고 밖에 날씨는 덥지만 건물안이나 직사내부는 에어컨으로 인해 춤기 때문에 긴 옷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도변화로 인해 감기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감기약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반팔티를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며 수영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수영복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 필리핀어학연수를 오기전에는 한달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질 줄 알았지만 막상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한여름밤의 꿈처럼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영어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말하기와 듣기실력에 있어서는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시험준비를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라 언어로써 배우다보니 부담감도 없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할수 있었던거 같고 영어라는 언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던거 같습니다. 다만 하루8시간공부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갔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예상보다 더 힘들었고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과 같이 여기저기를 놀러가면서 재미있고 잊지못할 추억을 만든거 같아 정말 좋았고 마지막에 선생님과 친구들과 헤어질때에는 정말 슬펐던거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고 해외에 대한 저의 견문을 넓힐수 있는 계기가 된거 같아 의미있는 시간이었던 같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바닷가</p>	<p>sm백화점</p>
	
<p>수빅 전통시장</p>	<p>수영장</p>



요트



단체수업